甲子元朝號

朝鮮日報

祥光이그득한 甲子年

七十四回甲子의大歷史를어처 신「한비임」(檀君聖祖)의眞影

甲子年에對한迷信을打破하라

詞藻

感想詩

聖人吟

籠鳥

新年所感

客中守歲

六甲頌

謹賀新年

朝鮮日報

其二

甲子略史

一、朝鮮之部

二、日本之部

三、中華之部

四、世界之部

—漫畫—

美愛關係

(感想文) 불으짓는靑年 (一) 鄭海駿

謹賀新年

(感想文) 善竹橋의 象徵

在東京 心 堂

하나님은 生命과사랑이다

(所願文) 歲在甲子萬事亨通

高敞 金永甲

賀 正

鼠話

사람사는집안에 몰아단니는 쥐가 성질이엇더하며 또한우리의인생과 여하한관계가잇는지 그것을들어잡간말하고자한다

쥐는금직이데소한 몸뚱이지 만은 그성질이 예민하고 꾀와의심이 며 단원뿐안이라 긔갈이 극도에달하는때에는동류간에도서로잡아먹는 일이잇서서심히잔인하고또한지혜가만습니다

智慧의 一例

꼬리로문을두다리며 약발은고기도씻는다

어느서양사람의긔록한것을보건대 잠자는때밤마다문을두다리는소리가잇섯스나 문을열고보면 아모것도업는지라하도이상하야 몃칠밤을두고조사하야보즉 쥐가주인의잠이들고안이든것을 알기위하야 두어마리가번차례로꼬리를휘둘너문을두다리는것을알게되얏다한다 또어느녀자는 고기에독약을 발너쥐가들어단이는곳에다두고쥐가먹고죽기를기다렷섯는데 그고기또한 은여전히업서지되 쥐는한마리도죽은것은볼수가업슴으로이상히너기면서도 계속하야고기를 노하두다가 어느날 그근처에잇는 수도(水道)뎌수지(貯水池)의물을너나리는곳에서 쥐한마리가 그약발은고기또각을찻고잇는것을보고그때에비로소그념려가깁고 또한죠심이 찰々한것을못내감복하얏다한다 쥐는가장긔음을조화하는고로 어느 사람이그지혜를시험코자하야 들깁음에섬지를너허그랑떠엇해다물을달며노코잠자는데하고누어보즉얼마안이되야 두어마리쥐가 와서꼬리를걸음가온데에 느코섬지를 눌너위선한편의물을운후에또다시다른편의 물을쇠라할때에 별안간소리를질느고일어낫슴으로 쥐는감작 놀내여 달어낫다 또쥐가 계란을가저가는데한마리가위선계란을안고잡싸지면다른쥐는그잡싸진쥐의머리를물고 끌기도하며 혹은그응덩이를밀어의사시럽게운반하야가는일도잇섯다한다

異味를偏感

별다른맛을보게되면 사생불고하고모히여

그식성으로말하면곡식 류종은물론말할것도 업고나무뿌리와 써ㅂ질또는입사귀등모든것을거진다못먹는것이업스며데일실어하는달고쓴것을제한외에는고초까지도먹고가장조화하는것은 길음이며 더욱이상한맛에입맛을부치여극단으로덤빌때에는 이러한이야기도 잇다 어느때불란서(佛蘭)서울「파리ㅣ」에서머지안이한어느동니에잇는도수장(屠獸場)에서하로동안에말삼십오필을잡아두엇다가그이튼날아츰에보즉고기덤은하나도부터잇지안이하고 쌔만앙상하게 남앗는지라크게놀나여조사하야본결과핑상히만흔쥐가다글거먹은줄을알게되얏다한다또「파리ㅣ」어느한도수장에서는저우사주일동안에일만륙천마리나되는쥐들잡아죽이엿다한다이것은일본사람들의목도하얏다는이야기라는데지금으로부터약 칠십여년전에 누일본신내천(神奈川) 신뎡 (新町) 과 포도뎡(浦島町)이지금과가티서로련접되지안이하고인가와써러저잇는물갓이엿는데그곳에누말버리는데가잇섯다

그런데어느때그말버리는장소에죽은말의 시톄하나가 물에밀니여왓섯는데 그시톄에는 오륙백마리나되는 여러쥐가달녀부터서 쓰더먹고잇섯다 그런데 그곳사람이그것을 발견하고 가에알니여그시톄를무든후에도 오히려 여러마리쥐들이 그위에달녀부터 또차도달아나지 안이함으로 다시관인게말을하야 관인은 란상협외한검파황수업시 도로파내여 바다에뛰워부내엿는데 그쥐들은 여전히 무러서시톄와 함께떠나갓다한다 듯기만하야도몸의써리가나는이야기다

可驚할蕃殖力

親鼠牝牡四年만에

잣쥐는백칠십륙만여두오 들쥐는약일억천칠백만두

속담에 쥐색기쎼갓다는것은 참으로핑상히 색기치는것을 말한것이다십여년전에본데산고등학교(山口…)에서조사한바에의하며쥐는 교접한지 이십 일일 되면색기를낫케되고 그색기는 나흔지삼일만에 눈을뜨니 백일만에교접하기를 시작하는데 색기수효는한번에 평균집쥐는 열마리내외길으는쥐는 오륙마리오 밧쥐는가장적어서 두세마리에 불과하며 큰쥐는색기나흔지 칠일동아만되면 벌서암내를내여 교접하고 시긔는아모때라도 관계치안이함으로 색기는번수도 일뎡치안이하나 일년에삼사번 혹만흔것은 열두번이나된다 그런대 쥐는 출생된후일개년을지내면 벌서늙어서 교접하는시긔가더되ㄹ뿐안이라 색기수효도 점々줄어저서 이개년이되면 겨우한두마리밧게못낫케되는고로일개년이상이된자는 번식에 덕당치못하고이개년후가 되면늙고 쇠하야죄서흔니죽는데 집쥐와밧쥐의 살아잇는동안은삼개년이내라한다

일본의학박사궁도간지조(宮島幹之助)씨가조사한바는집쥐유태하는동안이 대개삼주일간으로 부터삼십일가량이라일년에세번내지다섯번 량색기를 나코 특히개천쥐는색기를 더만히난는데 가장만흔경우에는 한번에 스물세마리까지치는일이 잇다또들쥐는 하번에네마리내지열곰마리를치는데일개년동안에 자조치며 수태하는날자수도짜르고 또한색기의 발육도속한고로 그번식이 비상히핑상하야집쥐는일년동안한마리쥐에게서일백열마리가 생겨나지만은 들쥐는집쥐보다도일층더만허서일백아흔여덟마리가량치는것이다그럼으로쥐가자웅두마리만 잇스면 사년만에집쥐는일백칠십륙만삼천사백마리가되고 들쥐는 일억일천륙백팔십에만칠천구백이십마리가된다한다쥐는이상과 가티비상히 만흔색기를치는데 색기가크게되야 색기를치고 그색기가 또색기를처서그러케번식되는것이다이와가티핑상히번식되는쥐는 도뎌히 제한시길수가업슬듯도생각하겟지만은엇코 그렇치안이하니 권괴와 가티주는이삼년후에는 늙고쇠함뿐 안이라또한개와 고양이와 쪽제비등의덕이잇는지라 힘써 구제하면 줄게할수가잇다

(漫畫) 一等 晉州 봉수업서生

小作問題

날라는데
모안주니
이놈좀

내야무슨죄가
잇소목구녁
이원수요!

이놈아!

晉州봉수업소生

衛生에害롭다

흑사병과다른병을 이놈이매개를한다

쥐가우리인생에대한관계는전혀해되는방면이다위선뎨일로위생상의해되는것이나듯기만하야도몸직몸직한흑사병이이놈들의번륙은도부터전염되는것이나쓰쥐는동오줌과가래침을먹음으로 또한 여러가지전염병을매개하염려도잇는것이며또쥐에게물니면 열병에 걸니는일도잇다 우리인생에게 이와가터위험한것이닛가 우리는매양 이놈들의번식을조해하며야할뿐안이라될더히 구제하기에 노력할것이라하노라

經濟上의損害

一年에五千·百萬圓

또놀날만한거액

위생상에 해로움은 권괴와갓거니와 또한경제상의손해가 물소하니유식물 의복 가산즙물 농작물 양잠 양제등에더손해를 씨침은나시말할필요가업고 권괴일복궁도」의학 박사의계산에의하즉 쥐한마리가쌀한되다먹으라면 이십칠날이걸닌다하다 이방법으로 계산하면 한마리가일년동안에 먹는쌀은약한말스되닷홉니작(개량누계산)될것이다 그러나쌀외에도 먹는것이여러가지잇고 또한디방을따러혹은쌀대신에 잡곡만먹게 되는곳도잇슬터이라 이것저것을 비기고또한참작하야 권괴한말스되 닷홉이작중에서 스되닷홉니작을 제하고 한말만먹는다할지라도 최근쌀시세에의하야 삼원이될것이다 그리고조선전도의쥐수효는대략인구수와가튼것으로치고계산하면일년간의손해는 실로 오천백만원의거액에달한다 그럼즉 경제상으로보아도구제할필요가잇는것이다

幾千萬의旅鼠

數年에亘하는大移住

산을넘고물을건너서 일직선으로행진한다

려서(旅鼠)라하는쥐는 동서양반구북쪽에서서식하고 가장스칸지나위이아」에서번식되는데 그서식하는곳에 눈이싸히면 눈을헷치고그밋헤잇는 니기(苔)등식물을글거먹으며 그번식력은비상하야 몃해동안에몃천만이라는 쇠일수업는큰군중은 저음절후가 갓가우면권괴와가티 만흔무리를다리고 이사를가는일이잇는데 그쥐들은종암절벽과가티 극단의 위험한곳이외에는물을건너고산을넘어서일직선으로 행진을하고 그지나는곳은농작물의피해가심한지라 그행진하는동안에 고기먹는 새김생에게살육되는것도물소한데 매양밤에행진을하며 이와가티 계속하는려행은 장구한때에는 이삼년동안이나되야 바다까지 도달치안이하면그칠줄을모르고또한선두가바다물에싸지게되면 압길을몰으는 호진은꼬리를이어다 빠저죽게됨다한다

정직한아해와 부정직한아해

(童話) 元山 林仕賢 [三等]

넷날어느곳에 정직한아해와 부정직한아해가잇섯습니다 정직한 아해의가정은 매우빈한하야 남과가치 서당에단이며 공부도못하고낫에는 독긔를메고 산으로단이며나무를하야장에지고가서팔아나만흔부모를봉양하며 밤이면 열심으로공부하얏습니다 부정직한 아해는 자긔의 부모가 공부를하라고 항상 권고하나 서당에 가서공부는 안이하고 낫분 동무들과가티 항상낫분작난만 하얏습니다 하로는 정직한 아해는 권괴가치독긔를메고산으로가서나무들하얏습니다 어떤집으로가에서 나무를하다가 실슈하야독긔를 못에떠러트렷습니다 어린몸으로 못속에써러트린독긔를 차자낼 가망이업서 그만울엇습니다 울다보니난데업는 엇던노인이것해와서 우는연고를물엇습니다 정직한아해는 반거머답하얏습니다「나무를 하다가실슈하야 독긔를 이못속에싸트렷습니다」노인은우스는얼골로서「울지마랍라 내가차저주마」하고 못물속으로드러가더니큰 금독긔를들고나와서「이것이너의 독긔냐」하고 물엇습니다 정직한아해는「안이요 그것은저의 독긔가 안입니다」하얏습니다 노인은 다시못속오로드러가더니 은독긔를가지고나와서「이것이너의독긔냐」물엇습니다정직한아해는「안이요 그것은저의독긔가안입니다」하얏습니다 노인은 다시물속으로드러가더니 무쇠독거를 가지고나와서「이것이 너의독기냐」무럿습니다 정직한아해는「예ㅣ그것이뎌의독기올시다」하고반가운마음으로노인에게 뛰여달녀드려 독기를밧고절하며 무럿습니다「노인은과연착한신어린이올시다 뎌의 일흠독기를 차저주시니」 과연 성씨가누구시냐고 무럿습니다 노인은빙그레웃는얼골로서「오ㅣ나는이산신령이라한다 너와갓치정직한아해는이ㅣ세상에드물겟다 이금독기는 독기를모다줄터이니 가지가부모님봉양을 극진히하고 공부도잘하여라」하더니문득간곳이엄슴니다 정직한아해는 깃봄을먹음고집으로 도라왓습니다 이우스에잇는부정직한 아해는 정직한아해의금「독기」「은독기」엇은 말을듯고 매우부러워하야 자긔집도잇는무쇠독기을메고그못잇는산으로차자가서「우ㅣ정」독기를못속에떠러트리고 무렷습니다 산신령님은또나와 그아해에게 우는리유를무럿습니다 욕심만흔아해는「나무를비다가 실수하야 독긔를이못에써트렷습니다」라고대답하얏습니다 산신령님은 그아해에게「우지마라내가차자주마」하고못물속으로드러가더니 금독긔한개를 가지고나와서「이독긔가네것이냐」하고 무럿습니다 욕심만흔이아해는「예ㅣ그것이 뎌의 독긔임니다」라고대답하얏습니다 산신령님은 대단히노하시며 하난말이「이부정직한아해야 네독긔는 무쇠독긔이줄을내가안다 너를시험하고저 이금독긔를가저왓다너와갓치부정직한 아해는 나는미워한다 너의무쇠독긔는언제라도 이못속에잇스리라」고무독간곳이 업섯다 부정직한아해는금독긔을 어드라다가 자긔의부쇠독긔까지일코 울며집으로 도라왓습니다

謹賀新年

米國職業野球團의性質과組織

許 城

野球로말하면米國에서는國技로定하야全國民이盛行하는運動인즉은우리朝鮮에서도장아는바어니와뇌가뭇을풀어쓰고저하는바는職業野球團에對한것이외다職業野球團은階級과명히잇지만은其中에서도特別히말하라는것은世界에代表的이될만한팀十六團體에對한것이외다此十六團은全國各地에散在하얏는데다시이十六團을兩分하야八團式으로한큰組織體를만들어이八團을組織한團體를一은『아메리칸리—그』라名稱하고一은『내쉬날리—그』라名稱하고各組織體에는會長과支配人이잇서統率하야指導하고各團에도各各會長과支配人이잇서自己團을支配하나니그한團은二十八名으로써組織되얏나니라(卽投手八人捕手가三人內野手九人外野手六人監督一人코취一人)如此히各團은純全한商業的임으로維持하는方法은普通銀行과會社와如히株式制度로써되야株數가만흔이가團長이되야그團을統率及維持하야가고以上에말한『아메리칸리—그』와『내쉬날리—그』는各各自治하야進行하엿다

그런데兩『리—그』에서는野球運動時期를四月十五日부터九月三十日까지作定하야右時期內에各團이相對競爭할順序를作定하야各團에서上記時期內에各各一百五十四回에競爭을할새에는一地方에서만하는것이아니라各地方으로巡廻하면서競爭하나니如此히하야一百五十四回競爭에第一勝利를만히한兩團(卽아메리칸리—그中에서한團과내쉬날리—그中에서한團)을選擇하야所謂野球世界優勝權奪取戰을始作하나니그時期는十月初旬부터인데七回戰에四勝한團에게로世界優勝權이가게하엿다

讀者에게此에對하야더仔細히紹介할려하오나너무張皇할뿐만아니라紙面에許諾지아니함으로以後期會로미루고一九二三年度世界優勝權競爭戰에對하야大槪만말하고저하다

一九二三年度世界優勝權競技에對하야競爭한兩團은共히한都市紐育(뉴욕)內에在한兩團—더—團은『아메리칸리—그』에서優勝한紐育『양키』團과—團은『내쉬날리—그』에서優勝한紐育巨人軍과相戰하게되얏는데競爭한結果『양키』軍이二敗四勝을하야及끗世界優勝權을紐育『양키』軍이獲取하얏다

그리하야六回競爭에收入된金額이十萬圓으로二百十二萬七千六百三十圓이며入場數는三十五萬名假量인데優勝한『양키』軍一名에게賞與金이本國돈으로一萬一千三百十圓式이며失敗된巨人軍選手一名에게分配한金額이八千三百圓式이다참이다如此히六回에金額이二百餘萬圓式收入되고入場者가三十五萬餘名式되는것을볼써에엇마나米國에서野球를조아하고盛行하는줄을可히알수잇스며우리東洋사람으로서각할써에는眞實로夢想外의일이다 以上에말한團에選手들에게俸給으로말하면『양키』軍에在한壘打王『써—모—쓰』갓흔選手로말하면年俸이五萬五千弗이最上이오以下로五千弗까지받으며巨人軍으로말하면最高年俸二萬弗以下五千弗식지주게되얏다 最終으로參考的으로말삼할것은再昨年에東洋에왓든米國職業團選手中에는一九二三年度世界優勝權爭奪戰에參加하얏든選手가幾人이잇는데巨人軍으로出戰하얏든選手로는一壘手로有名한『케리—』君과中堅手『스팅글』君과左翼手『뮤—슬』君이며『양키』軍中에서는投手로『싸—쉬』君『호트』君과『피닉』君이며捕手로는『토—만』君이參加하얏다

寧邊의恩師되는愛施置女史

寧邊支局 一記者

愛施置 女史

余가南山洋村을訪問키는어느날오러夕陽이다 해는누엿누엿西山에넘고 눈은조々々北風에날니는데 四時獨靑의다박솔나무는積雪에눌니여 힘업시느러젓다 松林中에빗긴길로 밋그러지며 올나갈제 寧邊名物인石造洋屋이一二三四五로 버러잇는곳에白衣黑裳의女學生二人이 압서고뒤서々내려오다가 來客을보고 吃驚하는態度로 記者의右側을 빗는지나간다 西便으로뵈히는二層洋屋이愛施置氏의邸宅이란다 石階에올나門을두다리니 問題의主人公이 나와서迎接한다 疑心半安慰半으로椅子를가르치며 白髮紅顔에半우슴을먹음고 流暢한朝鮮말로來意를問한다 英語모르는記者는 女史의우리말 하는것이萬番다힝이엿다 女史의 生長鄕은勿論米國이엿다 朝鮮에渡航하기는一千九百年十二月이랍다 距今二十三年前 이엿다 朝鮮宣敎를爲하야靑春으로부터獨身生活이엿다主를爲하야寧邊을爲하야 二十餘星霜을奮鬪하엿다 寧邊의師가되고또友가되엿다 女史의背後에는米國有力한背景이 잇지만은그런드謀에잇는在人이다고女史의誠意와敏腕下에서 崇德女學校가되고또女子聖經學院이되엿다 明春부터는幼稚園까지된다는 女學校의設備도寄宿舍도 完全無缺한歐米式이엿다 비록小規模는遺憾이나 今年春에落成된聖經學院은一萬六千圓의經費를投하야 美麗하고도實用的으로石造二層으로新築되엿다 그우에電氣燈까지裝置되여燦爛한燭은寧邊을不夜城化한다 記者는 다시感想如何를問하엿다 女史는한번웃고琉璃窓너머로市街를바라보며 녜— 感想이오別로업습니다 故國生覺말삼이오아니올시다 나는벌서寧邊사람되엿소不便하냐구요 아니어지요年前에 거가歸國하엿다가오山조코空氣조코 우리第二故鄕 다시寧邊을입願하엿습니다 京城말삼이오아니갑니다 내生前에이마리실이올시다 果然이지女史는寧邊의恩人이다 우리族中에서도朝鮮을爲하야十年二十年을自欺한이어시 일한사람은만치아니하리로다 朝鮮人된余의心中에도一種自愧한生覺이업슬수업다女史의高恩을千萬感謝하며南山을拜別하엿다

(童謠) 三等

모밀(牟)노리

益贊洞一一六 李在鳳

데궁々々 륵은데궁
매되々々 아홉매되
입파리난 포롯폭폭
꽃이동농 배꽃(梨花)일다
새야々々 파랑새야
모밀밧헤 안씨마라
모밀꽃치 써러지면
묵—장수 울고간다

(新詩) 佳作

쌔여진七寶塔

金志遠

나의온힘을다하야
어엿브게싸코은
燦爛스런七寶의玉塔은
그만쌔여젓서라
× × × ×
피빗어린怨毒의淚滴
자지빗斑點일우고
夜叉의무거운하프ㅁ
구슬프게서도는밤에
× × × ×
아—그써에나는
너무나섧어서 울엇스며
부르지젓나니다
쌔여진寶塔부둥켜안고
× × × ×
『아—무서운魔手며—
너의神秘로운힘
이—나의쌜간마음을……
아……
× × × ×
참으로 컷다
어러히거초론(荒野)
暴風雨에섞는
무서운鬼卒의王國에……』
一九二三、一二、一七
(終)

(漫畫) 三等 仁川無名氏

新春祝賀 春草池盛彩君揮毫

過去一年間의 우리의蹴球界

金源秦

數年來長足의進步로나아가는朝鮮運動界는昨春부터다시特別한隆盛을示하고各種競技會가到處에서擧行되야자못活氣잇게지나간다特히崇實靑年會의活躍으로少年運動界에 一大發展과刺戟을 與하얏다

그와同時의運動이國民生活에얼마나必要하다는것을理解하는人士가날노느러가며더욱이婦人의運動에對한愛好와興味가漸々깁허감은斯界를爲하야實로慶賀하는바이며또한將來를祝禱하는바이다

이와갓치運動競技가漸次發展되는中에도過去一年間의우리蹴球界를한번回顧하야볼진대다른運動보다도第一興旺하고普及되엿다고하겟다感想도만코希望도만흔癸亥年의蹴球界를다말할수는업스나몃가지만드러簡單히말하라한다爲先느진봄平壤에서開催된全朝鮮蹴球大會는京城佛敎靑年會參加한以外에는다平壤、잇는團體와學校뿐이엿다

그大會의最後勝利를닷토는佛敎對崇實軍의靑年團決勝戰은觀衆누구던지意味잇고趣味잇게 그 壯快한『세口』를보더고하얏슬것이다

그러나그『세口』는始作되자崇實軍……

春祝 全秀南君筆

(短篇小說) 孤悶의一夜 (二) 李享載

謹賀新年

이자리에선新年에 「나의所願은무엇」
(所願文) 三等 朱東赫

謹賀新年
清黃成河

(童話) 二等
말하는쥐
忠州郡龍山里公立普通學校 金殷相

一九二三 十二月十八日

(新詩) 二等
創造의航路
仙巖寺 申必熙

賀 正

京城府鍾路二丁目五十二 皮膚病 花柳病 專門 鍾路醫院 電話光化門一三八

京城府鍾路二丁目九十三 東西皮革商會 電話光化門七七 振替京城四二〇番

京城手形交換所銀行組合

京城府寬勳洞百三十番地 新舊書籍 學生用品 以文堂 振替口座京城一〇二七

京城府慶雲洞一七七 侍天教總部 電話光化門四七〇

京城府觀水洞三十番地 京城書籍業組合

京城(龍山)元町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電話龍山長三四番・振替京城八壹番 社長 李夏榮
登錄商標 京城 大陸고무 我朝鮮의元祖 美麗堅牢 고무鞋
京城鍾路(裁判所前) 同會社總販賣部 電話光化門七六五番・振替京城七二参番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二六 朝鮮合資帽子會社 洪承吉

京城府仁寺洞三十五番地 辯護士 李仁 電話光化門五二九

京城府鍾路三丁目八五 新舊書籍 新刊發行 書籍出版 雜誌販賣 永昌書館 振替京城六二三一

京城府黃金町二丁目四十 內外國藥材 新舊藥種 賣藥 蔘茸堂乾材藥房 振替口座京城八七四四 電話本局三七九四

京城府寬勳洞三十七 新舊書籍 文房諸具 學生用品 文友堂 主 金鈺 振替京城一二七七

京城府一丁目一六九番地 各種洋靴 新式流行 製造發賣 德裕洋靴店 電話光化門一八三番 振替京城七九八五番

京城南大門通五丁目十八番地 新舊書籍 五房在家 主 權永熙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七 滙東書館 振替京城七一二番

京城府寬勳洞 活文社書店 電話光化門九一五番 振替京城七一二番

京城府仁寺洞三十七番地 朴熙秉洋靴店 振替口座京城九〇四

京城黃金町一丁目九七番地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京城太平通二丁目 韓致鳳

京城鍾路二丁目二十七番地 楠商店 電話光化門一三〇番 振替京城一三〇番

京城南大門內 救世藥舘 電話本局一二七六番 振替京城一二六二番

京城本町二丁目 貴金屬 眼鏡一式 田中時計店 電話本局二三八番 振替京城四五七番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京城水曜會
朝鮮勸業信託株式會社
京城信託株式會社
朝鮮信託株式會社
京城穀物信託株式會社
朝鮮土地經營株式會社

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 仲買人組合

京城本町一丁目 合資會社 山岸天佑堂

市內南大門通一丁目 各種綢緞 布木直輸入 都散賣 白運永 電話光化門一三七六番

市內公平洞六十五番地 純綢鮮新式男女鞋 舊都散賣 金永根鞋店

樂園洞二七九番地 全祀

市內瑞麟洞五五番地 高應源

市內南大門通一丁目九九番地 最新式流行各種歐米式洋服 麗昌洋行

民衆劇團 團長 安光翊
權一晴 崔星海 宋海天 安鍾和
其外男女 俳優一同

京城府鐘路二丁目三番地 各種鐵工 實物各種 和信商會 申泰和 電話光化門一二

京城府蓬萊町一丁目八八番地 博文書舘 主務 盧益亨 振替貯金口座京城二〇二三番

京城府武橋町九二 漢城券番

京城蓬萊町一丁目七十七番地 新舊書林 主 池松旭 振替口座京城一八五三

京城府貫鐵洞一一九番地 刑事辯護士 共同研究會 電話光化門九〇四番

京城府貫鐵洞一一九番地 辯護士 許憲 電話光化門九〇四番

京城府仁寺洞六九番地 辯護士 金炳魯 電話光化門五四七番

京城府茶屋町九番地 辯護士 金泰榮 電話光化門參六番

京城府貫鐵洞一一九番地 辯護士 金用茂 電話光化門九〇四番

京城府瑞麟洞一五四番地 辯護士 李宗聖 電話光化門一〇七番

京城府苑洞三四 中央蜜蜂園 主 尹愼榮

京城鐘路通二丁目青年會館內 世昌洋靴店 主 梁世鎭 電話光化門一〇七三

京城府公平洞六十一番地 共濟社 電話光化門一九 振替京城七三九一

朝鮮日報

其四

庭球界의片想

延鶴年

(短篇小說) 孤獨

仁川 金響波

(新詩) 祖母님의 墓前에서

錦山 月帆

(童謠) 겨울아침

釜山 黃文卿

(童謠) 새해아침

京城 李蚕月

蒼松古石
甲子元朝寫爲
朝鮮日報社法供養
中山女史金錫範

◈……雲山金錫範女史揮毫……◈

謹賀新年

世界의 宿案

空觀生

一、國際共通案

二、數國間關係案

三、各國家及各民族의重要案

新年感想

(感想文) 二等

釜山高等公立普通學校第五學年 林應九

謹賀新年